

| 3월 Market Index | |
|--------------------------------|------------------------------------|
| ↑ 코스피 2432.07 (+4.22) | ↑ 코스닥 802.42 (+15.23) |
| ↓ 금리 (연율) 3.791 (-0.087) | ↓ 환율 (원/달러) 1301.60 (-14.00) |

[MWC 2023 폐막]
韓 기업 전시관
AI·DX·6G 등
차세대 기술력 뽐내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6일 월요일

미래 신사업 주도, 실적 개선... '오너3세' 승계 공고화

주요 그룹 3세 행보 주목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모비스 사내이사 재선임

정기선 현대HD 사장
신사업 투자로 입지 강화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방산·태양광 등 속속 결실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 정기선 사장 현대HD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 최성환 사업총괄사장 SK네트웍스 | 신유열 상무 롯데케미칼

국내 재계에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2세대 경영자들이 그룹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 가는 가운데 자녀들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승계구도를 공고히 해 나가는 모양새다. 3세 경영자들은 그룹의 신사업을 도맡으면서 그룹의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오너 3세'가 경영 일선에 나서는 모습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달 22일 현대모비스는 주총을 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가 3세로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구 명예회장의 외아들이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세 아들'의 3세 경영도 눈에 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은 태양광·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을 이끌고 있다.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그룹 김종희 창업주의 손자이자 김승연 회장의 장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8일 예정된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을 올릴 예정이다.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사업에 주력하는 중이다.

한화그룹은 또 한화갤러리아를 한화솔루션에 합병된 지 2년 만에 다시 분리했다. 재계에선 한화그룹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갤러리아 부문 전략본부장에게 유통 부문 사업 승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3세 경영의 핵심은 '신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대가 이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사업군과 연계될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정기선 현대HD 사장은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며 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정기선 사장은 현대가 3세로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다. 이미 차기 총수로 유력하지만,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 행보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사장은 자율운항 시스템과 수소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두 축의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룹 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선박자율운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아비커스(Avikus)'를 직접 행하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았다.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하고 신입사원들과 소통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며 직원

들과 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SK네트웍스의 경우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을 필두로 3세 경영 시대를 알렸다. 최 사장은 SK 최중건 창업주의 차남인 최신원 전 회장의 장남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블록체인, 미래 신기술 투자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은둔형 오너'로 분류됐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시게미즈 사토시) 롯데케미칼 상무도 그룹의 신사업인 모빌리티·지속가능성부문을 담당하며 경영 일선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신사업의 성공적인 수의 달성으로 '오너가 승계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젊은 오너들이 신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고, 앞세대와는 다르게 '소통 경영'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社告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2일(수)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잇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은퇴 준비 재테크와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김영의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거시경제 전망과 '증시업탐정', '엠블리'로 유명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주식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호지영 세무사(우리은행)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테크 전략, 김동업 미래에셋 상무의 은퇴 준비와 재테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행사명 : 2023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주 제 :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세테크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일 시 : 3월 22일(수) 14:00~17:1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방 식 : 선착순 현장참가 신청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시진핑 3기' 성장률 목표 5% 안팎... 역대 최저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중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
안정 우선 속 성장추구 의지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5% 안팎'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내놓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중국 최고지도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뉴스1

성장률 목표는 1월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이 제시한 6%를 1%포인트(p) 밑돈다. 골드만삭스(6.5%)나 모건스탠리(5.7%), 노무라(5.3%) 등글로벌

기관들 전망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강도 방역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3.0% 성장에 그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올해는 다소 보수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재

정 적자율 예상치로 GDP의 3%로 제시했다. 지난해 2.8%보다 0.2%p 높다. 2018년 이후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2.6%, 2.8%, 3.6%로 높여오다 2021년 3.2%로 하향 전환했던 것에서 1년 만에 다시 기조가 바뀌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목표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는 지난해 3조6500억위안(약 684조 7400억원)에서 올해 3조8000억 위안(약 712조8800억원)으로 늘렸다. 중앙,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경기 부양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5.5%였다.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로 지난해 신규 일자리(1200만개, 목표 1100만개)를 초과 달성) 수와 같다.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으로 설정했다.

국방예산은 7.2% 늘린 1조 5537억위안(약 291조4700억원)이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액률 7.1%에서 소폭 늘렸다. 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정부 검찰 출신 중용에 '만사검동' 비판
▲ 이재명,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정부 '골든타임' 대응 강조 /사진 뉴스1

▲ 또 '키보드 배틀' 붙은 홍준표-이준석
▲ 행안부, 100일간 지자체 대상 특별감찰 실시



▲ 정부, 반지하 침수 등 신종재난 선제 훈련 시작... 연 3회 계획 /사진 뉴스1
▲ '수박' 논란 커지는 민주당, 이재명도 자제 요청